

불교, 통치 이념으로... 진호국가 개념 정착



김용래 교수의
한국불교 도표 36選

3. 신라, 불교와 왕권의 만남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에서 외래 종교인 불교가 수용, 공인된 것은 공통의 정치사회적 조건과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다.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불교를 공인할 당시 삼국의 공통된 점은 고대국가 정립을 위한 왕권 강화,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 정비가 추진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라보다 앞서 고대국가의 완비를 이룬 고구려와 백제는 4세기 후반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율령과 관료제도 등을 정비하였다. 이에 비해 신라는 6세기 초까지 왕권의 절대적 권위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연맹체적 정치구조가 지속되고 있었다.

한반도 동남쪽의 변두리에 치우쳐 있던 신라는 삼국 중에서 고대국가 체제의 완비가 가장 뒤처졌다. 신라는 6세기 전반 법흥왕 때에 와서야 율령을 반포하고 관료의 공식 의복을 제정했으며 귀족세력의 대표인 상대등 관직을 신설하여 국왕을 보좌하게 하였다. 이는 6촌의 촌장, 앞서 군주를 배출한 박 씨와 석 씨 집안 등 여타 지배세력과 크게 차이나지 않던 신라 국왕의 지위가 한 단계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신라의 귀족세력은 왕권 강화와 연동되어 있던 불교의 수용을 대놓고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불교는 이들의 입지를 좁히는 국왕 중심 통치체제 정비에 이념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고, 자신들이 믿는 천신이나 조상신 등 토착신앙보다 훨씬 강하고 영험한 종교이자 고차원의 사유체계로 보였기 때문이다.

신라에서는 귀족세력의 반대와 이차돈의 순교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불교가 공인되었고 김 씨 왕실은 왕권 강화를 위해 불교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처럼 불교와 왕권이 만나게 되면서 이후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냈고, 후진적 약소국이었던 신라는 자신감 넘치는 강소국으로 성장하여 삼국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신라에서 불교와 왕권의 만남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전문성왕 관념의 수용

먼저 전문성왕 관념의 수용을 들 수 있다. 전문성왕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 군주로서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려 내세에 미륵불이 하생할 수 있는 토대를 닦는 왕이다. 기원전 3세기 무렵 인도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왕은 정복전쟁이 끝나자 다르마(법)에 의한 사회통합과 평화를 추구하였고 자신이 바로 전문성왕임을 내세웠다. 신라에서도 그를 모델로 하여 6세기 중반 진흥왕이 전문성왕 관념을 처음 표방하였다. 그는 왕자들의 이름을 전문성왕에서 따온 동륜과 사륜(철륜)으로 지었다. 또 신라 최대의 사찰인 황룡사를 창건할 때 아쇼카왕이 불상을 만들기 위해 모았던 황철과 황동을 얻어



지금은 폐사된 황룡사지의 복원 조감도(사진 왼쪽)와 경주 문무대왕 해중릉(사진 오른쪽)의 모습. 황룡사지와 해중릉은 불교가 통치 이념으로 활용했던 신라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적들이다.

장육존상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진흥왕은 아쇼카왕과 마찬가지로 신라의 영토 확장과 발전에 큰 업적을 쌓은 위대한 군주였다. 그는 백제를 몰아내어 남쪽의 가야를 병합하였고 한강 유역과 함경남도 등 한반도 중서부와 동북부까지 신라의 영역을 크게 넓혔다. 진흥왕은 자신이 북쪽시진 지역에 도덕에 의해 차별 없는 통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순수비를 건립하였고 순행을 할 때는 승려들을 대동하였다. 이는 아쇼카왕이 법에 의한 통치를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해 수많은 석주를 세운 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여담이지만 서울 북한산 비봉에 세워져 있던 진흥왕순수비는 19세기 초에 추사 김정희가 탁본을 뜨고 글자를 판독하여 조선은 물론 중국 금석문 학계에까지 알려졌다.

신라에서 불교와 왕권의 만남을 말할 때 왕실의 '진중(眞種)' 의식을 빼놓을 수 없다. 진중 의식은 신라에서만 확인되는 독특한 현상으로 인도의 크샤트리아, 또는 붓다가 속한 석가족의 혈통에서 유래한 '참된 혈족'이라는 뜻이다. 신라 왕실은 진중 의식을 통해 자신들이 바로 석가족임을 자부하였고, 진흥왕에서 진덕여왕까지 4명의 국왕이 왕명에 진眞자를 썼다. 또한 왕족을 지칭하는 진眞眞眞 명칭도 진중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왕의 직계 일가는 붓다의 직계 가족과 동일한 성스러운 권위를 가진다고 하여 성골聖骨이라고 불렀다.

진흥왕의 왕자인 동륜의 아들 진평왕은 자신의 이름을 붓다의 아버지인 백정(정반왕), 형제들은 붓다의 삼촌인 백반과 국반, 왕비는 붓다의 어머니 이름인 마야로 칭하였다. 이는 자신을 이어 다음에 올 국왕이 바로 부처임을 예고한 것이었다. 하지만 후계를 이을 아들이 없자 대신 딸인 덕만이 선덕여왕으로 즉위하였고 그 다음은 덕만의 사촌 승만이 진덕여왕이 되었다. 덕만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일부러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열반경'에 나오는 '덕만 우바이'에서 따온 이름이고, 선덕은 붓다로부터 전문성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된 '선덕 비라문'에서 취한 명칭이다. 또 승만은 <승만경>의 승만부인에서 유래

한 이름이다. 이처럼 신라에서 2명의 여왕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신라 사회에서 모계의 비중이 크거나 여권이 컸기 때문이 아니라 진중의식에 기반한 혈연관념에 의해서였고 그 신성한 권위를 붓다와 석가족에서 찾았던 것이다.

한편 신라는 왕명도 불교식으로 정하였는데, 불교가 공인된 6세기 전반의 법흥왕부터 삼국통일 직전인 7세기 중반의 진덕여왕까지 신라의 왕명은 모두

의 왕명도 전문성왕에서 따온 것이었다.

신라왕권 아래 성장한 불교

신라에서 불교는 왕권 강화에 활용되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왕권의 비호 아래 교단의 안정적 성장도 도모할 수 있었고 일부 승려들이 국정 운영에 참여하기도 했다. 신라의 불교 교단은 진골 출신인 자장에 의해 그 체계가 잡혔는데, 그는 계율을 정비하여 수계 의식 및 승단 운영의 토대를 닦았다. 한국불교사에서 국가와 교단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국가 체제 안에 불교가 편입된 것도 자장에 의해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자장이 중국에 유학하여 문수보살을 만났을 때, "너희 국왕(선덕여왕)은 인도의 잘례리종(크샤트리아) 왕인데 이미 부처님의 수기를 받았으므로 남다른 인연이 있으며 여타 동이족과는 다르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한다. 자장은 643년에 당에서 신라로 돌아와 대국통에 임명되었고 선덕여왕과 조정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교단 체제를 정비하였다. 자장은 또한 국가사찰의 위상을 지닌 황룡사에 높이 80m에 이르는 9층 목탑을 세울 것을 건의하였다. 이는 삼국중흥기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신라의 안정과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상징적 조형으로서, 탑을 9층으로 세운 것은 불교의 힘에 의해 주변 9개 나라와 족속의 침입을 막아내려는 염원을 담은 것이다.

한편 신라에서는 오랜 과거부터 신라가 불교와 인연을 가져왔다는 불국도 관념이 성행하였는데, 이는 불법과 호법신이 부처의 나라인 신라와 국왕을 보호해 준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황룡사가 과거불중 하나인 가섭불이 머물렀던 곳이라는 인식이나 9층 목탑의 발원도 불국도 관념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또한 전문성왕, 석가족의 표명 또한 신라가 불국토라는 확고한 믿음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한편 국가의 안정을 기원하는 진호국가 법외인 백고좌회도 613년 원광의 주도 하에 황룡사에서 열렸

다. 백고좌회는 붓다와 왕들의 문답을 기록한 <인왕

의 왕명도 전문성왕에서 따온 것이었다.

의 왕명도 전문성왕에서 따온 것이었다.

의 왕명도 전문성왕에서 따온 것이었다.

의 왕명도 전문성왕에서 따온 것이었다.

의 왕명도 전문성왕에서 따온 것이었다.

의 왕명도 전문성왕에서 따온 것이었다.

의 왕명도 전문성왕에서 따온 것이었다.

의 왕명도 전문성왕에서 따온 것이었다.

의 왕명도 전문성왕에서 따온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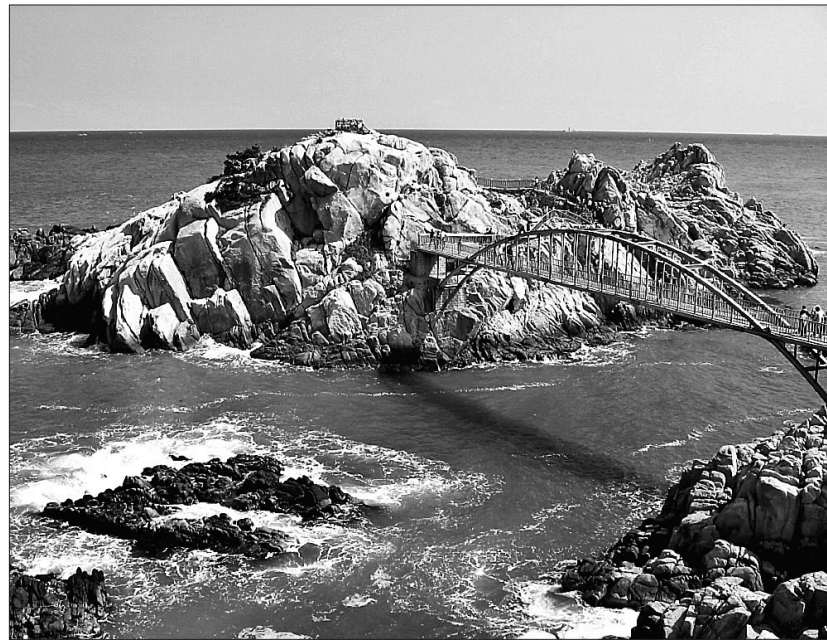
의 왕명도 전문성왕에서 따온 것이었다.

의 왕명도 전문성왕에서 따온 것이었다.

의 왕명도 전문성왕에서 따온 것이었다.

의 왕명도 전문성왕에서 따온 것이었다.

의 왕명도 전문성왕에서 따온 것이었다.



지금은 폐사된 황룡사지의 복원 조감도(사진 왼쪽)와 경주 문무대왕 해중릉(사진 오른쪽)의 모습. 황룡사지와 해중릉은 불교가 통치 이념으로 활용했던 신라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적들이다.

반야경>에 근거한 법회로, 이 경전은 국가의 재난을 막고 복을 기원하려면 국왕이 먼저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되어있다. 황룡사 백고좌회에서 설법한 원광은 신라인의 윤리규범으로서 세속오계를 제시하였다. 세속오계는 충성을 다하여 군주를 섬긴다는 사군이충, 효성을 다하여 부모를 모신다는 사친이효, 신의를 다하여 친구를 사귄다는 교우이신, 전쟁에 나가 물러서지 않는다는 임전무퇴, 선법적으로 살생을 한다는 살생유백이다. 이는 유교 덕목과 불교적 관념, 무엇보다 전란기의 시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신라의 세속적 현실에서 지켜야 할 틀이었다.

'王法 아래佛法' 고착화

삼국은 오랜 기간의 치열한 각축 끝에 신라와 당의 연합작전에 의해 660년 백제, 668년에 고구려가 망하면서 통일이 이루어졌다. 삼국통일 과정에서 전란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돌보고 민심을 위무하며 죽은 이들을 추도하는 일은 절실한 시대적 과제였다. 또 새로 복속된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것도 당면한 문제였다. 불교는 당시 사람들의 삶의 고통을 해소하고 내세에 위안을 주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지역과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였다. 앞서 중고기 신라 왕실에서는 왕권 강화와 통치이념 정립에 불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였지만, 통일 이후는 정치이념으로서 불교의 역할은 축소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종교적 기능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 중대의 국왕들은 정치이념으로 유교를 내세우며 덕치를 강조하였고 왕의 권위도 도덕적 자질과 군주의 능력에서 찾게 되었다. 또한 왕명도 불교식이 아닌 태종 무열왕, 문무왕처럼 유교적인 중국식 시호를 사용하였다. 이는 통일 후 더욱 정교한 정치 운영능력과 통치체제 확립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이때 명실상부한 유교정치가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삼국통일을 완수한 문무왕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어서 동해의 용이 되었다고 서원하였고 사후에 동해 바다의 해중릉에 묻혔는데, 이는 유교 정치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불교 교단은 통일 후에도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지만 국가 권력으로서의 예측 정도는 점차 심해졌다. 황룡사, 사천왕사 등 주요 사원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성전(成典)이 설치되었고 8세기 후반이 되면 사찰 건립과 교단 운영을 주관하는 정법전이 세워지고 승관이 임명되었다.

불교는 원래 세속 권력과 무관한 출세간의 가르침이자 종교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세간과 동떨어진 초월적이고 독립적인 출세간의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불교 교단은 왕권에 종속되었다. 고대 한국, 특히 신라에서는 왕권 강화를 위해 불교를 적극 활용하였고 세속의 권력과 불교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공존의 길을 모색하였다. 즉 불교와 왕권이 만나면서 불교 의회와 왕권 강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냈고 이는 서로가 원원하는 방식이 되고 했다. 그러나 이때 시작된 불교(종교)에 대한 왕권(국가)의 우려 구도는 이후 고착화되었고, 결국 '왕법 아래 불법'이라는 도식이 한국불교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지속되었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무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 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주문 : 현대불교 현불사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안뜨라 YANTRA

The Tantric Symbol of Cosmic Unity

지혜를 들여다 보면 자신이 보인다!!!

안뜨라 YANTRA
The Tantric Symbol of Cosmic Unit

우주적 합일의 만트라 상징 안뜨라
안뜨라는 명상과 의례의 도구이며, 복잡한 형이상학적 상징이다.

이 책은 안뜨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이다. 170왕 이상의 축복과 절과 안뜨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근원적 전체로 회귀하기 위한 명제 여정에 도움을 주는 우주적 합일의 만트라 상징으로 안뜨라의 역동적 과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인도의 강력한 상징에 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한다. 안뜨라는 전통적 사찰 건축과 조각, 명상에 활용되며, 의례와 만트라와 관련된다. 저자는 인도의 특수성과 특수성 모두에 사용되는 안뜨라 뿐만 아니라 무척으로서 힘을 가지는 안뜨라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가격 : 19,800원 | 마두 카나 지음 | 심상욱 옮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합니다.

수능엄경 (首楞嚴經)

천명일 해설

가격 : 상 20,000원 / 중 20,000원 / 하 27,000원 | 세트 전3권 값 67,000원

도서출판 지혜의나무 [전화 02-730-2211]